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음 5월 30일)

제23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흥식 삼락농정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도입

전국 광역 시·도 최초... 도내 주소지를 둔 10만여 농가 도·시군이 4대 6 비율로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지원

전북도가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키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에 주소지를 둔 약 10만여 농가에게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연간)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농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역사정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지금이 지역

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과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

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지역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성 기자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 전북도, AI 방역관리 강화

도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대상 연 1회 방역교육 이수해야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곳을 대상으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금중개상인, 가든형 식당과 이들 업소에 닭·오리를 공급하는 농장은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체계적 방

역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농장 및 시설은 ▲닭·오리 입식·출하 전 신고, ▲조류인플루엔자 정기 검사, ▲월 1회 휴업·소독, ▲연 1회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원인 중 일부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가금에서

의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전북도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 대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는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가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대만·중국·러

시아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예찰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울바른 소독약 사용방법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특화산업 '살리고' 취업률 '높이고' 도교육청, 직업계고 학과 개편

군산상고 창업경영과 등 내년 7개 학교·15개 학과

전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는 1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직업계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 오수고등학교 반려동물산업과가 교육부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북지역 직업계고등학교가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내년 도내 7개 직업계고에서 15개 학과개편이 이뤄진다. 직업계고 학과개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 전북형 직업계고 모델 개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취업률은 2016년 37.0%, 2017년 29.0%, 2018년 25.0%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입생 충원률(정원 내 1학년 기준)은 2017년 478명(10.0%), 2018년 712명(16.5%), 2019년 647명(16.6%) 미달됐다.

미용과로 외식마케팅과는 조리제빵과로 변경한다.
부안제일고는 푸드테크과를 식품가공과로 바꾸고 산업기계과는 첨단농기계과로 변경한다. 삼례공고는 전자제어과를 드론항공과, 자동화기계과를 도제기계과, 전기제어과를 부사관전기과로 각각 개편한다.
이리공고는 통신과와 전자과를 전자통신과로 건축디자인은 건축과와 도목과로 분리하고, 전주생명과학고는 생명자원과를 식물과학과와 반려동물과학과로 바꾼다.
이번 학과개편은 올 초 전북직업교육 혁신방안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고, 기간산업 중심의 학과 육성에 초점을 뒀다.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북형 직업계고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져왔다"면서, "이번 학과개편은 학생 선호도와 미래직업 및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고,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기계, 전기, 자동차 등 기간산업 중심의 학과 육성 ▲학생 선호도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직업 및 산업수요 반영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학급 감축 등이다.
군산상고는 세무행정과를 창업경영과로,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식품가공과를 바이오식품과로, 남원제일고는 미용마케팅과를 목공예과와

한편,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 선정 학교에는 2019년에 남원제일고 목공예과, 장계공고 조리제빵과, 진경여고 토탈부티과 등 3개 학교 4개 학급, 2020년에 군산상고 경영부사관과, 덕암정보고 드론학과, 한국게임과학고 소셜미디어개발과, 함열여고 호텔조리제빵과, 오수고 반려동물학과 등 5개 학교 6학급이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학과개편 승인 후 신입생을 모집하며, 학급당 약 2억 5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참은성 기자

전주시, 31일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청년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만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대체상품 기획·개발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와 지역 거주 확인서 1부씩을

작성해 시청 자원순환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8월 중 심사를 거쳐 금상 1명 등 총 6명의 입상자를 선정한다. 입상자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금상 50만원 등 총 150만원 규모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송홍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